

짜파구리 이어 오빠게티·짜계치까지... '짜파게티' 전성시대

〈짜파게티+너구리〉

〈짜파게티+오징어짬뽕〉

〈짜파게티+계란·치즈〉

SNS 해시태그 게시물 21.9만개 영화 기생충 흥행타고 '인증열풍' '단순히 먹는것 아닌 '조리 후 공유'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의미" 연매출 2190억, 전년비 19% 급증 국민 1인당 7개... 연 3.4만개 판매



인스타그램 짜파게티 해시태그 검색화면.

지난해 온라인 SNS 상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은라면 브랜드는 농심 짜파게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은 짜파게티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게시물 수가 21만 9000여 개(2월 1일 기준)로 국내 라면 중 가장 많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불닭볶음면(19만5000)과 신라면(14만6000), 진라면(6만9000) 등 시장 대표 브랜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해시태그는 SNS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이다.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를 작성한 다른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어 네티즌들이 자

신의 관심사를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한다. 해시태그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애정

을 표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등록된 짜파게티 해시태그 게시물은 약 5만 개에 달한다. 짜파게티 해시태그 전체 21만 9000개 중 1/4가량이 지난해 새로 올라온 셈이다. 농심 관계자는 "2020년 짜파게티를 향한 소비자의 사랑이 더욱 각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짜파게티를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조리해 먹고 그 모습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싶어할 만큼 짜파게티가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이처럼 짜파게티가 지난해 특별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함께 영화에 등장했던 '짜파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부터로 분석한다. 그간 '국민 모디슈머(평소에 친숙하게 먹던 음식들을 조합하여 나만의 음식으로 바꾸는 것) 레시피'로 불리던 짜파구리가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됐고, 연초부터 온라인에서는 짜

파구리를 먹어본 소비자들의 인증 열풍이 불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에서 요리해 먹는 '홈룩' 트렌드가 생겨나며 짜파게티의 인기가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연중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라 분석이다. 이는 짜파게티가 수십 년 간 전국민을 '요리사'로 등극시키며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농심 측은 설명했다. 짜파게티는 짜파구리뿐 아니라 '오빠게티(짜파게티+오징어짬뽕)' 등 다른 라면은 물론, 계란, 치즈('짜계치'), 만두 등 다양한 재료와 섞어 즐기는 독특한 레시피를 무수히 창출해 내며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인기에서 짜파게티는 2020년 전년 대비 19% 성장한 2190억원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짜

파게티 출시 이래로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라면시장에서 연간 매출액 2000억원이 넘는 브랜드는 신라면과 짜파게티, 진라면 세 제품 뿐이다. 짜파게티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약 3억4000만 개에 이른다. 전 국민이 1년간 7개씩 짜파게티를 끊어 먹은 셈이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짜파게티는 전 국민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며 "올해도 계속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스마일배송 물류센터. /이베이코리아

설빅세일 '스마일배송' 거래액 70% 급증

이베이코리아, 43개 브랜드관서 운영 평일 저녁 8시 구매시 다음날 받아 이베이코리아가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설 프로모션 '2021년 설빅세일'에서 '스마일배송'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설빅세일이 시작한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5일 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 옥션 스마일배송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스마일배송은 설 선물세트 등 실속있는 상품 라인업, 가격 할인으로 스마일배송 판매 고객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일 저녁 8시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주문한 여러가지 상품을 합배송 받을 수 있어 고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생필품/가공식품/가전/뷰티/도서 등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제주도까지 익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번 설빅세일에서는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피앤지 ▲유한킴벌리 ▲오뚜기 등 총 43개 인기 브랜드가

스마일배송 브랜드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 기간 매일 누구나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스마일배송 전용 15% 할인 쿠폰(최대 5천원)을 제공하며, 멤버십제 '스마일클럽' 회원은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스마일배송 전용 20%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고객들이 스마일배송을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1월 29일 기준)은 가공식품이다. 베스트 아이템으로 '진라면 매운맛 멀티팩'을 비롯해 '오뚜기 컵누들 매콤한맛', '동원참치 라이트 스탠다드 100g', '오뚜기 참깨라면(용기)', '3분 쇠고기카레 200g', '비비고 사골곰탕 500g' 등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생필품, 가전 제품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매출 1위인 '탁도핏 생유산균 골드 5통'은 29일 기준 약 3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고려의단 비타민c 1000 600정', '종근당건강 홍삼 녹용 프리미엄 30포' 등이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컴투스, PC게임 공략... 개발사 올엠 인수

지분 57% 취득... 게임 IP 등 취득

컴투스가 PC 온라인 게임 '크리티카 온라인' 개발사 올엠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게임 개발사 올엠의 지분 약 57%를 취득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컴투스는 올엠의 PC 게임 개발 역량과 유명 게임 IP(지식재산권), 자회사 판플로의 모바일 게임까지 확보하며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올엠은 '크리티카 온라인', '루니아 전기' 등 PC 게임을 서비스하며 개발력과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를 쌓아온 중견 게임 기업이다. 대표적인 '크리티카 온라인'은 2013

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70여 국가에서 2000만 이상 회원이 즐기고 있으며, 2007년 디지털콘텐츠 대통령상을 수상한 '루니아 전기' 또한 80여 국가에서 500만 이용자가 함께 한 인기 게임이다. 특히 '크리티카 온라인'은 세계 최대 온라인 시장인 중국에서도 현지 파트너 텐센트와의 협업을 통해 6년 넘는 기간 동안 서비스되고 있다. 컴투스는 이번 올엠 인수를 통해 이와 같은 장기 성과를 이끈 PC게임 개발력, 특히 자체 엔진 개발 및 다양한 상용 엔진 활용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며, 자사 게임 IP의 멀티플랫폼 확장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올엠이 준비하고 있는 신작 게임 개발과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상호 협력 또한 전개해 나갈 예

정이다. 또 '빛의 계승자', '크리티카: 천상의 기사단' 등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올엠 자회사 판플로와도 협업을 진행한다. 판플로는 현재 컴투스가 확보한 '워킹 데드'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수집형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컴투스는 지난해 독일 게임 기업 '아웃 오브 더 파크 디벨롭먼트' 인수로 첫 해외 기업 M&A를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 향후에도 게임 및 문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 투자 및 M&A를 적극적으로 전개, 새로운 기업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유통-납품 상생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연장

백화점·대형마트 등 17곳 참여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형유통업체 17곳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백화점 업계 5곳(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3곳(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복합쇼핑몰 1곳(타임스퀘어), 온라인쇼핑 4곳(쿠팡·SSG·마켓컬리·무신사), 아울렛 4곳(롯데·현대·신세계·뉴코아아울렛) 등 유통기업 17곳이 참여했다. 1차 협약당시 보다 참여기업이 4곳

늘었다.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 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 대규모 유통업자에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부과하고,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왔다. /신원선 기자

농식품부-카카오 맞손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카카오와 손잡고 3일부터 카카오맵 및 웹사이트 다음(www.daum.net)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맵 또는 다음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안심식당'으로 검색 시 지자체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 안심식당 위치와 정보는 T맵(2020년 8월5일~), 네이버(2020년 9월 23일~), 한식누리집(2020sus 8월19일~)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와 제공 등 요건을 이행한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